

홍익표 “윤 정부 2년 경제·민생 파탄... 정권 심판 해달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민주주의 후퇴” 정권심판론 부각
與에 공정경제 등 ‘4대 과제’ 제안
尹 겨냥해 리더십 전환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정치 협업’을 제안하며 ▲공정 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과하며 자연스럽게 4·10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갔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는 국민이 보내준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정치 협업’을 제안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연설문 주제 역시 ‘관용과 협업 정치’였다.

그는 “보수가 사회안정만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며

여야가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자고 했다. 보수와 진보의 협업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강의 기적”, “무역 강국”, “북방정책의 성공”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공(功)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협업의 4대 과제로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을 제시했다.

곧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국회의 주요 과제를 일찌감치 제시, 정책·이슈 주도권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른바 ‘3C(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소통-Communication)형

지도자론’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관용·협업이 그런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뿌린 여야 협업의 씨앗이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 피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현역 하위 20% 통보’에 뒤숭숭

31명 확정... 이재명 대표 “환골탈태 과정서 생기는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를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하면서 공천 문제에 대한 제파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하위 20% 명단에 비명(비이재명)계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반발과 사천(私藏)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날부터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평가 결과

를 통보하고 있다.

명단에 총 31명이 포함된 것만 알려졌을 뿐, 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명단에 속했는지는 밝힌 바 없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의 이름이 대거 포함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지라시’처럼 돌면서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개별 통보를 받은 비주류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국회의장은 전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하위 20%에 속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탈당을 선언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정활동 평가에서 1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다른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다가 총선(승리)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데려다 줄 것 같다”며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후 반발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며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신정훈 “나주 교육자유특구 설치·명문고 육성”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혁신도시 일대 밀집한 젊은층의 표심 공략을 위해 ‘명품 교육도시 나주’ 조성을 위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20일 자신의 교육 공약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학교법인 설립, 나주 교육자유특구 설치, 명문고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거주민 평균 연령이 34.3세로 젊은층이 밀집해 있는데, 만 9세 이하 인구가 혁신도시 인구(3만 9957명·1월 말 기준)의 14.4%에 달한다.

신 후보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 안전한 학습권 보장 등 교육환경에 대한 젊은층 관심을 반영한 공약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초·중학교 등 학교 신설 추진, 자율형 사립고·국제고 신설, 전남대학교·외고 활용 등 명문학교 육성, 나주 교육발전재단 설립 추진 등의 공약을 발굴해 제시한 이유다.

신 후보는 “구준히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교육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갑원 “순천에 첨단산업 RE100 기업 유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

서갑원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는 20일 ‘RE100 기업 메카 도시 순천’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 기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순천은 대표적 생태환경도시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보다 훨씬 용이하게 끌어 쓸 수 있다”면서 “비메모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RE100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투자할 600조원의 10%만 순천에 투자해도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 후보 주장이다.

서 후보는 “전남지역은 태양광·풍력 생산이 국



내에서 가장 많지만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기가 남아도 팔지 못하고 오히려 출력 제한을 하는 실정”이라며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후보는 “3선 의원의 정치력으로 순천이 생태환경도시뿐만 아니라 RE100 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금주, 보성 가축시장 방문 축산업 애로 청취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20일 보성군 가축시장을 방문,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보성군 가축시장의 경우 매주 화요일 이른 새벽 개장, 거래가 이뤄진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축산업 관계자들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 체계 구축방안과 관련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효과적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 후보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지역 가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약에 반영,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어업인 기본소득제와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도입, 효도상품 구매 세액 환급정책 등 노인·농어어미를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문 예비후보는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는 행정 전문가라고 평가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